

<읽기와 쓰기> 제 3기 독후감			
■ 분반	27반	■ 학부	컴퓨터공학
■ 담당 교수	허윤진	■ 학번	20171665
■ 담당 조교	곽진우	■ 이름	이선호
■ 읽기자료	엘리자베스 콜(Elizabeth A. Cole) 편, 「한국에서 과거의 이용과 악용: 역사 가르치기와 화해에 대한 고찰」, 『과거사 청산과 역사교육: 아픈 과거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동북아역사재단 번역총서 24), 김원중 역,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0, pp.468~512.		
■ 독후감 제목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수정주의적 입장이 필요하다.		
■ 글의 개요	<p>1. 서론</p> <p>1) 역사적 서술에서 변화의 움직임, 수정주의적 입장</p> <p>2) ‘한국 전쟁’에 관한 수정주의적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p> <p>2. 본론</p> <p>1) 역사적 사실의 해석에 있어서 수정주의적 관점은 일부 필요하다고 본다.</p> <p>2) 그러나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은 수정주의적 입장에는 반대한다.</p> <p>3. 결론</p> <p>1) 저자가 근거로 든 예시에서의 아쉬움</p>		

※독후감은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 / 마지막에 글자 수 기입.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sup>1)</sup>”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는 역사가 해석하는 사람의 가치관이나 관념에 의해 변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 서술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역사 서술에 대한 수정주의적인 입장이다.

본 저자는 대한민국 교과서에서 서술하는 한국 전쟁의 역사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적대적인 남북관계의 화해 증진을 위해서 정부가 교과서에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대입하기를 지양하고 역사 서술에 관하여 관용적인 태도를 지향하는 수정주의적 관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저자는 브루스 커밍스의 연구를 근거로 들면서 한국 전쟁의 발발 원인이 북한에게만 있기 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에 의한 것이기에,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역사적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주의적 관점은 역사 서술에 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의 반대와 더불어,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하여 북한을 적대적인 존재로 서술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는 다수의 노년 세대와 부딪히고 있다고 서술한다. 사실, 필자는 명백한 사실 관계에 관해 사람마다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역사적 사실의 해석에 있어서 수정주의적 관점은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동안 수많은 사료에 의해 입증된 어떠한 역사적 사실에 관해 합리적인 반론을 내세우지 않고, 이를 부정하면서 저자처럼 역사 서술의 극단적인 관용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데는 부정한다.

역사는 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서술하는 것이므로 절대적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사료를 기반으로 역사가들에 의해 해석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료가 발굴되거나 역사가들의 다양한 관점에 의해 기존 정설도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즉, 과학의 패러다임 변화와 유사하게 역사 그 자체도 해석적이고 규범적인 속성으로 인해 변할 수 있다.<sup>2)</sup> 그러므로 역사와 수정주의적 관점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과<sup>3)</sup> 같은 역사적 사건을 재해석하거나 광해군 같은 역사적 인물을 재평가하는 데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친 수정주의적 입장은 사회적인 물의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여기서 ‘정도가 지나친’이란 다양한 사료에 의해 명확한 사실로 밝혀진 사건에 대하여 저자처럼 합리적인 반론의 근거를 들지 않으면서 다른 방향의 역사적 관점을 주장하는 바를 말한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읽기 자료에서 저자는 한국 전쟁의 발발 원인에 관한 예시를 들고 있는데, 이는 명확히 잘못된 것이다. 한국 전쟁의 직접적인 발발 원인이 ‘북한의 남침’이라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다.<sup>4)</sup> 물론, 한국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 전쟁 발발에 아예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학계에서 이에 관한 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sup>5)</sup> 만일 저자가 이에 관해 반론을 제시하고 싶다면 이제까지 밝혀진 자료가 틀리

1) 최선훈 저, 「과거와 현재의 대화 - 역사란 무엇인가」, 『고교생이 알아야 할 한국사 스페셜』, 네이버 학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85903&cid=47322&categoryId=47322> (검색일자: 2017년 4월 29일)

2) 토머스 S. 쿤(Thomas Samuel Kuhn) 저, 「서론: 역사의 역할」, 『과학 혁명의 구조』, 김명자 · 홍성욱 옮김, 까치, 2013, 71쪽

3) 하일식 저, 「묘청의 난과 김부식, 정지상」, 『시대와 사람, 그리고 맞수』, 중등우리교육, 1995, 202~205쪽

4) 박명림 저, 「남침-북침 논쟁의 종결을 위한 자료와 사실의 검토와 해석」, 『누가 한국전쟁을 시작하였는가?』, 1995, 91~132쪽

5) 이완범 저,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정병준, 돌베개, 2006)」, 『한국전쟁 발발 직전의 상

다는 걸 입증할 만한 근거를 내세워야 하는데, 그는 단지 브루스 커밍스의 연구 주장을 간접 인용했을 뿐이다. 게다가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저서를 작성한 지 약 20년이 지난 후 자신의 주장이 일부 틀렸음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sup>6)</sup> 저자가 내세우던 근거마저도 신뢰성을 잃게 된다.

필자는 저자가 말하는 수정주의적 관점을 완전히 부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건강한 수정주의적 관점은 역사 서술에서 새로운 반향점을 찍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그러나 빈약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수정주의적 입장은 역사 해석을 왜곡할 여지가 있고, 심지어 국내외로 다양한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의 사례처럼<sup>7)</sup>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다분하다. 저자가 한국 전쟁을 사례로 들기보다는,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과 같이 명확한 사실이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가치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수정주의적 입장을 옹호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각주 제외 1,969자)

---

황: 내전설과 남침유도설에 대한 비판적 조망』, 2006, <1. 한국전쟁은 내전이 아닌 국제전이다.>, 《내전을 한국 전쟁이 일어난 주요 원인이 아닌 전쟁의 배경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이유》, 382~385쪽

6) 조선일보, <美 브루스 커밍스 교수, 30년 만에 '남침 유도설' 부인>, 2013년 6월 23일 (검색일자: 2017년 4월 29일)

7) 함동주 저, 「일본 역사수정주의의 내셔널리즘과 타자인식」, 『일본역사연구』, 2003, <1.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와 역사수정주의>, 24쪽